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d2c1acdbd5e13634f8edcb810a82d242833a652328fddf7487e881ef11ae5048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중국 헝다그룹, 9/20일 이자지급 불가능. 채무불이행 등 관련 위험 고조

- EU 집행위원장, 중국 일대일로를 대체할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
- ECB 이사, 통화정책 판단의 최우선 지표는 자산매입 규모가 아니라 차입금리
- 중국 8월 소매매출과 산업생산, 전월 및 예상치 하회로 경기둔화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제성장 둔화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 회피 감소

주가 상승[+0.9%],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일부 경제지표 호조, 저가 매수,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이 배경
유로 Stoxx 600 지수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0.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부진한 8월 산업생산 발표 이후 하락 전환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음 주 FOMC 경계감 등으로 소폭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3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67.0원, -4.1원) 0.4% 하락, 한국 CDS 하락

		9/15일	9/14일	전일대비			9/15일	9/1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480.7	4,443.1	0.85%	국채 금리 10y	미국	1.30%	1.28%	2bp
	유럽	463.91	467.65	-0.80%		독일	-0.31%	-0.34%	3bp
	중국	3,656.2	3,662.6	-0.17%	CDS 5y	한국	17bp	18bp	-1bp
	일본	30,512	30,670	-0.52%		중국	33bp	33bp	0bp
	한국	3,153.4	3,148.8	0.15%	위험 지표	EMBI+	-	357	-
환율	달러지수	92.49	92.62	-0.14%		VIX	18.18	19.46	-6.58%
	유로화	1.1817	1.1803	0.12%		WTI유	72.61	70.46	3.05%
	엔화	109.38	109.69	0.28%	원자재	구리	440.2	431.8	1.93%
	위안화	6.4325	6.4386	0.09%		금	1,794.1	1,804.5	-0.58%
	원화	1,170.5	1,170.8	0.03%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중국 헝다그룹, 9/20일 이자지급 불가능. 채무불이행 등 관련 위험 고조

-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채권은행들에 해당 내용을 통보. 헝다그룹은 대출 재조정 혹은 차환 가능 여부를 협의 중이나, 은행·주택매입자 협력업체 등에 지급할 금액이 3050억달러에 달해 채무불이행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 특히 정부 당국이 향후 대응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이 중국의 핵심 금융 리스크로 부상. 신용평가사 S&P는 헝다그룹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CCC→CC) 향후 등급 전망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
- 골드만 삭스는 헝다그룹의 문제가 부동산 시장 전체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 다만 JPMorgan은 관련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지원에 나서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해도 이번 사건이 극단적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백악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지속

- 사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대화를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다고 발표. 특히 양국 간 정상급 회담의 성사를 위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

■ EU 집행위원장, 중국 일대일로를 대체할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

-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은 글로벌 초경쟁 시대에 EU가 좀 더 역동적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Global Gateway'의 출범을 언급. 이번 제안은 역내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 축소를 위한 의도로 추정

■ ECB 이사, 통화정책 판단의 최우선 지표는 자산매입 규모가 아니라 차입금리

- 레인 이사는 자산매입 규모가 결국 차입금리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 이번 발언은 ECB가 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진단
- 한편 슈나벨 이사는 델타 변이의 영향에 대한 과대평가로 초저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공급 병목 등으로 물가상승과 생산감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충격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

■ 영국 8월 소비자물가(CPI), 9년 만에 최고 수준. 내년 금리인상 관측 강화

- 통계국,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2% 올라 2012년 3월 이후 최고치. 영란은행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등으로 CPI 상승률이 연말에는 4%에 이를 것으로 전망. 로이터 설문조사, 영란은행의 2022년 말 금리인상을 예상

■ 중국 8월 소매매출과 산업생산, 전월 및 예상치 하회로 경기둔화 가능성

- 같은 달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5.3% 늘어 전월(6.4%)과 예상치(5.6%) 대비 낮은 수준. 반도체 공급 부족, 정부의 규제 강화가 주요 요인. 소매매출도 전년동월비 2.5% 증가했지만, 델타 변이 여파 등으로 전월(8.5%) 및 예상치(6.3%) 큰 폭 하회
- Oxford Economics의 Louis Kuijs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부진 등으로, 3/4분기에 이어 4/4분기까지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

■ 일본은행 총재, 그린본드 등 채권의 매입을 지속할 방침

- 구로다 총재는 그린본드 매입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 국내 인플레이션 상황은 미국과 유럽과 다르기에 필요 시 완화기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

■ JPMorgan,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 의견 제시

- 코로나 19 영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위험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신흥국 증시의 비중 확대를 권고. 또한 내년 전세계 GDP의 코로나 19 이전 수준 회복이 예상되기에 전반적으로 증시에 강세(bullish) 입장을 유지한다고 천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34.3, 8월(18.3), 예상치(17.9)
- 미국 8월 수입물가(전월비): -0.3%, 7월(0.4%), 예상치(0.2%)
- 미국 8월 산업생산(전월비): 0.4%, 7월(0.8%), 예상치(0.5%)
- 중국 8월 고정자산투자(전년동월비): 8.9%, 7월(9.0%), 예상치(10.3%)

■ 주요 경제 이벤트(9/16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미국 9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8월 소매매출
- 미국 9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호주 중앙은행 의사록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코로나 19 이후 세계경제, 국가 간 불균형 성장은 지속될 전망 - Financial Times

(‘Post-Covid’ remains a mirage for many developing economies, warns UN)

-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선진국의 개혁이 개도국에 파급되지 않을 경우, 양자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 2021년 미국과 중국이 높은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도국은 마중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MF의 특별인출권 활용,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도 부채부담, 백신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국가 간 격차 외에도 소수 국가 주도의 경기회복은 양극화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

■ 미국의 코로나 19 경제대응,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나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 - WSI

(How the U.S. Nailed the Economic Response to Covid-19)

-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초기 상황은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 하지만 신속한 경제 재개방,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대규모 정부 지원금 등은 미래의 잠재적 경기 침체의 피해를 줄이며, 빠른 경제 회복을 주도
- 금주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빈곤가정 비율이 '19년 10.5%→'20년 11.4%로 증가했으나 금년 9.1%로 감소. 아울러 '08년 금융위기 이후 GDP 회복에 3년이 소요되었고 이전 생산경로 복귀에 실패했던 점과 달리, 불과 18개월 만에 GDP 회복
- 또한, 연말까지 팬데믹 이전 성장 경로로 회귀를 전망. 하지만, 막대한 정부 부채와 추가 실업급여,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등의 비효율 논란 등은 경기회복 지속에 장애 요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정책의 현재 시점 평가는 긍정적

■ 미국 인플레이션 논란, 연준의 일시적 현상 입증에는 다수 변수가 상존 - 블룸버그

(This Is No Knockout Win for Team Transitory)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부진, 부동산 주도 성장의 취약성을 노출 - WSI

(China Goes Cold Turkey on Propert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